

# 스마트폰 몰라도 전화 한통에 호출 동행택시, 어르신 활력 신고 달린다

서울시 '동행 온다 콜택시' 접근성↑  
다산콜센터 전화로 편리하게 호출  
9시부터 22시까지... 이용료 무료  
오세훈 "어르신 이동·활력 챙길 것"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6일 서대문구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방문 어르신과 동행 온다콜택시를 호출한 뒤 배웅하고 있다. /서울시

"자녀가 도와줘야 겨우 택시를 탔는데, 이제는 전화번호를 저장해두고 바로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편리해요."

서울시가 스마트폰 앱 사용을 어려워 겪는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운영 중인 '동행 온다 콜택시' 접근성을 높인다. 6일부터 다산콜센터 02-120으로 전화하면 별도 앱 설치 없이 원하는 장소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

'동행 온다 콜택시'는 스마트폰 앱 대신 전화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콜센터에 출발지와 도착지를 말하면 원하는 장소로 택시가 배치된다. 배차가 확정되면 차량 위치와 차량 번호, 기사 연락처가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로 안내된다.

기존에는 전용 콜센터 1855-0120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도 바로 연결된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별도 전화번호를 기억하거나 저장하는 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 경로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별도 이용료는 없다. 신청은 02-120 다산콜센터와 1855-0120 온다 콜택

시 콜센터 모두에서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09건이던 운영 완료 건수는 올해 5월 6820건으로 증가했다. 누적 이용 건수는 약 4만4000건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20~40대는 60% 이상이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80%가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 악화나 병원·복지관 이동 등 필수 이동 상황에서 전화 호출 서비스가 어르신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이용자들은 병원 방문 등 필수 이동 상황에서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이용자는 "집 앞에서 자주 가는 병원도 몸이 아프면 이동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전화번호를 저장해두고 이제는

택시를 바로 부르고 있다"며 "너무 편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 내 프로그램실과 운동실, 식당 등 어르신 이용 시설을 살폈다. 오시장은 현장에서 '동행 온다 콜택시' 배차 호출 과정을 시연하고,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열어 교통 이용과 일상생활 관련 의견을 들었다.

오시장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 없이 이동하고 활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교통, 건강, 여가 등 생활과 맞닿은 정책을 더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학생 마음건강 위기, 모든 교사가 읽는다

서울교육청, 마음 지킴의 날 맞아  
학생 마음건강 위기 대응자료 배포

원 방법 등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은 오는 10일 '마음 지킴의 날'을 맞아 관내 초·중·고·각종·특수학교에 교사용 학생 마음건강 위기 발굴·대응 자료를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청 관계자는 "학생의 언어와 행동 변화 등 교실에서 놓치기 쉬운 위기 신호를 관찰하고, 교사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학생 자살자 수가 2021년 28명에서 2025년 51명으로 늘고, 자살 시도 건수도 같은 기간 3.9배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조기 발견과 대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자료는 교사들이 학생의 마음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교사 등 모든 교원이 학생의 일상 변화와 위기 신호를 살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북부 마음 이음 365 마음건강 위기학생 발굴 및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마음건강 검사를 기반으로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이를 확대해 교원의 학생 관찰과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에는 학생 마음건강 위기 신호와 자살 위험 징후 체크리스트, 위기 징후 발견 시 단계별 대응 절차, 학생 상황별 지

/이현진 기자

# 수원시, 동네 지키는 '반려견 순찰대' 출범

251개 팀 위촉... 생활 위험요소 신고

수원시는 지난 2024년 장안구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시범 운영한 뒤 지난해 활동 범위를 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사업 시행 3년째를 맞아 총 251개 팀이 순찰 활동을 펼친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4일 수원시기족여성회관에서 '2026년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을 열고 올해 활동할 반려견 순찰대 251개 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221개 팀이 모두 1만7206회 순찰을 실시해 생활 주변 위험 요소 658건을 신고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산책하며 실종자나 주취자 등 위험에 처한 시민을 발견하거나, 펜스 파손과 배수로 막힘 등 생활 속 위험 요소를 확인해 신고하는 시민 참여형 안전 활동이다. 이와 함께 합동 순찰과 안전 캠페인에도 참여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탠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올해 반려견 선발 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반려견 순찰대의 역할과 활동 요령, 안전수칙 등을 공유했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배재고, 광주서 사과... "교육적 회복 출발점"

(정근식 교육감)

배재고 야구부, 광주제일고 찾아  
사과문 낭독, 5·18 민주묘지 방문  
"인성 중요성 깨달아... 깊이 반성"

를 존중하고 책임감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교육청, 학교운동부 문화 점검  
정근식 "사안 엄중 인식... 책임 느껴"

배재고 방문단은 앞서 광주제일고를 찾아 선수단과 야구부 감독, 교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낭독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 교직원과 지도자, 학생선수,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 86명은 이날 광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성찰과 역사교육을 진행한 뒤 광주제일고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차례로 방문했다.

5·18 민주화운동 폄하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선수들이 광주를 찾아 고개를 숙였다. 학생선수와 감독, 교직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배재고 방문단은 6일 광주제일고에서 사과문을 낭독한 뒤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은 끝이 아니라 교육적 회복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배재고 야구부 선수단은 광주제일고 방문 자리에서 낭독한 사과문을 통해 "6월 29일 목동야구장에서 펼쳐진 청룡기 야구대회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으로 광주제일고 선수들과 학부모, 광주 시민분들께 큰 상처를 드렸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자리에서 "상처를 입은 광주제일고 학생 선수들과 관계자, 광주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스포츠는 단 순히 승패를 겨루는 경기장을 넘어 서로

선수단은 "팀 모든 선수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야구를 떠나 인성과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지 깨닫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됐다"고 했다. 이어 "광주제일고 선수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와 힘들음을 겪게 한 점은 같은 선수로서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다"며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배재고 야구부 감독도 별도 사과문을 통해 지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배재고는 자체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련 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묘역 참배와 관련해 "민주주의와 인권, 상생의 가치가 깃든 엄숙한 공간에서 학생들은 역사의 무게를 느끼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준 상처를 깊이 성찰했다"며 "부끄러움을 아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배움과 성장이 시작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용기, 그리고 이를 포용과 넓은 마음으로 맞아주는 연대의 정신이 바로 학생들이 평생 가슴에 품어야 할 민주 시민의 가치"라며 "학생들이 성찰과 배움의 여정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운동부 운영 문화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용인시, 지방세 가상계좌 확대... 편의 강화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 가상계좌 운영 금융기관을 기존 5곳에서 7곳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태료와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금융기관이 부여한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이번에 추가된 금융기관은 우리은행과 우체국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기존 농협,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더해 우리은행과 우체국까지 모두 7개 금융기관 가운데 주거래 은행을 이용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용인(경기)=김대의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7 | 해질 / 19:56

7월 7일 (화)  
음력 : 5월 23일

수도권 날씨  
24 ~ 3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 연천 23/29
- 동두천 23/29
- 가평 22/29
- 파주 23/29
- 서울 24/30
- 양평 24/30
- 인천 24/29
- 수원 24/30
- 용인 24/30
- 평택 24/3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국제유가, 하락세...OPEC+ 증산 합의에 WTI 68달러선  
▲트럼프, 총기 규제 빗장 푼다...정신질환 일부도 제한 완화 검토 /사진 뉴시스

▲미국 국민 10명 중 6명 "이란과 전쟁, 비용 대비 가치 없어"  
▲중, 세계 첫 전자기식 캐터펄트 상륙함 '쓰촨함' 공개

▲日정부 "중국방부가 탄도미사일 발사 통지...심각 우려 전달"  
▲이스라엘군, "레바논 남부 공습은 헤즈볼라 세 포 공격한 것"